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는 나라

세계교원의 날을 맞으며



2015년 촬영



2017년 촬영



2017년 촬영



2019년 촬영

누구에게나 자기를 가르쳐 준 고마운 스승이 있다. 첫걸음마 떼어준 어머니처럼 한자한자 글을 배우주고 차곡차곡 지식의 탑도 쌓아 주며 인생의 바른길을 가라고 손잡아 이끌어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교육자라고 한다.

나라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교육자들이 지닌 사명은 자못 중요하기에 국제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많은 날들중에는 세계교원의 날도 있다.

1994년 10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100여개 나라의 교육상들과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교육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일치한 요구와 합의에 따라 10월 5일을 세계교원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할것을 결정하였다.

세계교원의 날을 기념하는 기본목적은 사회발전에서 교육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교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

이도록 하자는데 있다.

해마다 세계교원의 날을 맞아 많은 나라들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사업에 개선하고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는 정치적위기와 경제불안정으로 인해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줄어들고 교원들의 생활 처지가 개선되지 못하고있으며 이는 교육사업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이 날로 높아지고있으며 전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는 분위기가 서 있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교육자는 존경과 긍지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이것은 후대들을 위하여 학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 준 세계가 부러워하게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정과 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주체101(2012)년 9월 창건거리 살림집들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어 따듯이 추방해주신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부터 모든 학생들이 한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공부하게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이때부터 모든 교육기관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참으로 수업료의 전반적폐지는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의 승고한 발현이였으며 사회주의교육정책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되었다.

이 내각결정과 더불어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나라의 교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이제 머지않아 훌륭히 일떠서게 될 보통강강안다락식 주택주요도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함께 과학자, 교육자들이 입사하게 된다.

어찌 그뿐인가.

명칭이나 또 스승의 생일 날이면 제자들이 자기를 배워준 고마운 교육자들의 집을 찾아가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는 모습도 이 땅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교육자들이 있다. 하지만 공화국의 교육자들처럼 부강조국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로 떠맡들리우고 긍지높은 삶을 누려가는 복받은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고마운 제도에 보답하기 위해 공화국의 교육자들은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것이다.

《비약하는 조선의 교육, 교육자로서 부러움을 금할수 없다》

몇해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화국의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본 외국의 벗들은 이렇듯 놀라움을 받았다. 그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가장 우월한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에는 학생들에게 일신의 이익과 학업보다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도록 가르치고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밀접히 결합하고 있는 조선의 교육방법은 참으로 훌륭하다. 어릴적부터 이렇듯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조선인민이기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한다. (튀르키예전선대표단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관직속에 평양교원대학은 현

《위대한 어머니의 따사로운 사랑이 어린 몸자리에 행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 가정뿐이겠습니까. 그 품속에서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같은 그 은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본사기자 림광훈

《비약하는 조선의 교육, 교육자로서 부러움을 금할수 없다》

몇해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화국의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본 외국의 벗들은 이렇듯 놀라움을 받았다. 그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가장 우월한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에는 학생들에게 일신의 이익과 학업보다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도록 가르치고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밀접히 결합하고 있는 조선의 교육방법은 참으로 훌륭하다. 어릴적부터 이렇듯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조선인민이기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한다. (튀르키예전선대표단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관직속에 평양교원대학은 현

《위대한 어머니의 따사로운 사랑이 어린 몸자리에 행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 가정뿐이겠습니까. 그 품속에서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같은 그 은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본사기자 림광훈

언제인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던 남조선의 기자가 한 학생에게 월사금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그 학생이 오히려 기자에게 이렇게 물어서 기자를 아연하게 한적이 있다.

《우리 궁전에는 가야금이랑, 어은금이랑은 있는데 월사금은 없어요. 그건 무슨 약기나요?》

이미 수십년전에 공화국에서는 수업료가 완전히 폐지된것으로 하여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수업료, 월사금이라는 말을 전혀 알수가 없기때문에 생긴 일이라 하겠다.

공화국에서는 1959년 3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때에도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게 하였으며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도 취해졌다.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인민학교(당시)와 초급중학교(당시) 학생들이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이밖에 초등학교, 유아사학원, 기능전수학교, 사범전

독자문답

재카나다동로 림철영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수업료가 언제 폐지되었는가?

《독자문답》

재카나다동로 림철영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수업료가 언제 폐지되었는가?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때에도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게 하였으며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도 취해졌다.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인민학교(당시)와 초급중학교(당시) 학생들이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이밖에 초등학교, 유아사학원, 기능전수학교, 사범전

신동들이 자랑다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비약하는 조선의 교육, 교육자로서 부러움을 금할수 없다》

몇해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화국의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본 외국의 벗들은 이렇듯 놀라움을 받았다. 그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가장 우월한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에는 학생들에게 일신의 이익과 학업보다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도록 가르치고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밀접히 결합하고 있는 조선의 교육방법은 참으로 훌륭하다. 어릴적부터 이렇듯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조선인민이기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한다. (튀르키예전선대표단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관직속에 평양교원대학은 현

축 처진 어깨, 긴 한숨

남조선에서 교원들의 처지

수업에 참가하지 않았고 수업시간 동안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대해 지적을 당했다. Q교사는 전날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가겠다고 학교를 나선 후 행방불명되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Q교사가 근무했던 곳은 천안시 Q교사였다. Q교사는 전날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가겠다고 학교를 나선 후 행방불명되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Q교사가 근무했던 곳은 천안시 Q교사였다. Q교사는 전날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가겠다고 학교를 나선 후 행방불명되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Q교사가 근무했던 곳은 천안시 Q교사였다.

《교실에 들어가는게 무섭다》

남조선잡지 《신동아》는 《(매맞는 선생님) 실태보고》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들 때마다 대부분이 학생들의 사의를 떠올리는 처지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들을 향한 학생, 학부모의 폭력, 폭언을 먼저 떠올린다고 고백한다.

파 거친 언행으로 대응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잡지는 Q교사가 학생들을 안고가고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여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썼다.

무하는 D교사는 실제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적이 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썼다. 《수업시간에 만지는 아이에게 집중 좀 하라고 하자 (X나 짜증나.)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선생님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했더니 갑자기 (X×N, 지성질에 못이겨서 짜증을 내네.)하는데 이러다 큰 일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 일단 학생에게서 떨어졌지요.》

대구의 B교사는 학부모에

국민소득이 높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뛰어난 예술적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기란 조건이 없다. 막대한 개인적지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뛰어난 음악적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은 품을 들여 세계적 명성을 떨치는 음악신동들로 키워내고있으니 아무리 좋은 씨앗도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알찬 열매로 주렁질수 있다는 말을 실감했다.

경상유치원에는 지난 시기 많은 국제경연무대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이북 유치원의 어린이들과 졸업생들의 이름과 사진이 두 벽면을 꽉 채우다싶이 하고있었다.

2012년 12월에 진행된 제20차 소백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상과 특별상을 받은데 이어 제9차 라흐마니노

무너진 교실과 추락한 교원

남조선잡지 《주간경향》은 이렇게 전하였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배수로에서 40대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Q교사였다. Q교사는 전날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가겠다고 학교를 나선 후 행방불명되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Q교사가 근무했던 곳은 천안시 Q교사였다. Q교사는 전날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가겠다고 학교를 나선 후 행방불명되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Q교사가 근무했던 곳은 천안시 Q교사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